

언론중재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배려계층에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와 7월 15일 경기중앙변호사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적 배려계층과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조정·중재심리 참석이 곤란한 당사자에게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권성 위원장, 고연금 중재부장(수원지법 부장판사)을 비롯해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및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과 부회장,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 협약식에서 권성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도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관리구제의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장성근 회장은 “공익 활동에 대해 변호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본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무료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3월 전북 및 충북 지방변호사회와도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ADR 체험과 언론사 견학 등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턴십

● 해가 갈수록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올해는 ADR체험과 언론사 견학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한층 다양해졌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중재위원회’를 주제로 한 교육 후 모의조정을 통해 ADR을 체험하거나 언론사 견학을 한다.

● 2013년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7월 19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화여고·용인외고 학생들이 권성 위원장(앞줄 가운데)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